목회자 칼럼

어름치의 산란탑

신철범 목사

일급수인 한강 최상류와 동강(東江)에서만 사는 '어름치'라는 우리나라 고유어종이 있습니다. 이 고기가 산란하는 장면을 KBS '자연 다큐멘터리'라는 프로에서 특집으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어름치는 산란기가 되면 알을 산란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적당한 곳을 발견하면 알을 산란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름치가 다른 고기와 특이하게 다른 점은 바로 산란하는 모습입니다. 어름치는 산란을 한 후,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작은 자갈을 입으로 물어다가 알 위에 산란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어미 어름치는 밤새도록 그 일을 합니다. 물론 수놈은 일은 하지 않고 주위에서 놀기만 합니다. 그 일은 전적으로 알을 산란한 암놈의 몫입니다. 새벽녘이 되면 두 번째 알을 산란합니다. 그리고 이 어름치 암놈은 또다시 자갈을 날라다 산란탑을 쌓습니다. 입으로 자갈을 물어와서 산란탑을 쌓은 후, 이번에는 모래를 물어다 그 위에 덮습니다. 이 고기가 그렇게 산란탑을 쌓는 것은 알이 부화할 때까지 다른 물고기가 와서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요, 어름치 알은 작아서 자갈 사이로 빠져 나와 물에 떠내려 가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알이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산란을 합니다. 다섯 번의 산란이 끝나면 또다시 자갈을 입으로 물어다 놓고 모래를 입으로 물어다 덮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의 산란은 하루종일 걸렸습니다. 어름치는 산란이 모두 끝나도 그 주위를 떠나지 않고 탑 주위를 돌면서 탑을 지킵니다. 물론 어미 어름치 한 마리가 산란탑을 지킵니다.

4일이 지난 후, 어미 '어름치'는 탑을 떠납니다. 그러자 다른 물고기들이 탑의 모래 사이로 빠져 나온 알을 주워 먹으려고 주위에 모여 들었습니다. 탐사팀들은 어미 어름치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미 어름치를 찾기 위해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탐사팀들의 TV 카메라가 산란탑 주위, 1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어미 어름치를 발견했는데, 어미 어름치가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미 어름치는 알을 산란한 후, 알이 부화할 때까지 그 알을 지키기 위해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산란탑을 쌓아갔고, 몸이 초췌해져 가면서도 그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산란탑을 다 쌓은 후, 자기 생명이 다할 때까지 탑 주위를 지키다가 산후 조리도 하지 못하고 죽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갈과 모래로 쌓은 산란탑이 있었기에 연약한 알은 다른 물고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소진해 가며 산란탑을 지켰던 어미 어름치가 있었기에 알은 새로운 형태의 어름치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름치의 알과 같이 죄에 연약한 우리를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 새 생명을 주셨고, 교회라는 생명의 산란탑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가시고 있습니다. 이제 20세기 마지막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의 산란탑을 쌓으시고 죽어 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분과 함께 새로운 즈믄해를 함께 건너 가시는 교우님들이 되기시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

함즐
함울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제21호 (격월간)
발행일 1999년 11월
발행처 주님의교회 출판부

주님의교회

(138-220)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교내)
주님의교회
T. 416-5181~2 F. 416-5180
인터넷 ID : http://www. Lord - church. or. kr

CONTENTS

1
어름치의 산란탑 / 신철범 목사
2
복음과 함께 / 강신후 장로
3
못 말리는 하나님 /
김화수 목사
4~5
특집 / 치유
6
주님의교회 대학·청년들의 활성화를 소망하며 / 김원재 전도사
이 분도 주님의교회
7
교회소식
교우동정
신앙 클리닉
법률상식 / 김완중 집사
새책 안내
8
시 / 배경란 집사
의학상식 / 신성숙 집사
유머 한마디 / 박용천 집사
만화 / 김원준(고등부)

시론

복음과 함께

강신후 장로(66구역)

1990년 겨울 어느 금요일 저녁, 대학부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 참이었다. Wellesley College에 다니는 에스더라는 여학생이 면담을 요청하였다. North Carolina에서 온 조용하고 예쁜 신실한 신앙인이었다. 대학부 부장을 맡고 있던 나로서는 자주 있는 일이라 아무 생각 없이 면담에 응하였다. 학생들 다수가 자리를 떠난 뒤 에스더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런 질문을 하였다. "장로님, 제가 이번 5월에 대학을 졸업한 후 중국 본토를 위한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소원함이 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 전 제가 주님께 이러한 소명을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00여 명의 한인 2세들로 구성된 대학부는 장년들에 비해 상당히 뜨거운 심령들이 많이 있었다. 매년 방학 중 미국 밖으로 아니면 시카고·뉴욕 등지의 빈민촌으로 선교를 가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 교회적으로 조금씩 지원하고 있었으나, 그 당시만 해도 선교 활동이 지극히 위험한 중국 선교에 삶을 헌신하겠다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충격적인 질문에 당황한 나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주님 제가 이 딸에게 무슨 대답을 해 주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도 후 나는 그 학생에게 조용히 대답하기 시작하였다. "에스더, 주님께서 우리가 천하 만국을 다니며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개인에게 보내주신 편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에스더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고 믿고 읽었으면 에스더는 이미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없는 대답이있다. 이 대답은 이후로 나의 삶에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였다.

교육을 할 때는 교육의 목표가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공학교육은 학생들에게 기초 과학과 응용 지식을 습득케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이해하고 다른 기술을 개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 하셨다.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때에도 둘씩 짝지어 고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케 하셨다. 그후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하시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하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였다. 크리스찬인 우리 모두의 삶에 지극히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들린다. 바울이 옥중에서 자기의 삶을 끝내며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나를 부끄러워 말고 …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딤후1:8)고 권유하였음을 기억한다. 자기 일평생을 통해 복음을 위해 겪은 고난을 그에게 권하는 내면의 뜻은 무엇인가?

과거 나는 미국 연구소에서 10여 년 일하면서 복음의 증거는 입으로 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나 믿게 되는 이에게 가장 쉽다는 것을 체득하게 되었다. 처음 나는 직장 동료들에게 나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믿지 않는 그들은 나보다 더 신사적이고 이해성이 밝았으며 남의 필요를 생각하며 합당한 도움 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다. 합리적인 기독교 사회에서 교육 받고 자라온 그들에게는 기독교인의 삶이란 누구나 살아가야 할 당연한 삶의 모습일 뿐이었다. 말로 그들에게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들은 전혀 들을 수 없다는 사실과,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이 선한 삶을 보이려다가 실패하여 중도에 포기하기가 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입으로 하는 복음의 증거는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다. 우리의 언행과 표정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준비 되어 그들에게 다가가며 생활하여야 되기 때문일까? 때로는 그들의 삶을 들추어야 할 때도 있고 그들이 생각하기 싫은 부분을 건드려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무례하게 보일 때도 많다. 특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며 가슴 졸일 때도 많다.

지난번 전철 안에서 큰소리로 전도하다가 역무원과 다투는 거리의 전도사를 본 적이 있다. 다투는 정도가 심하여 거의 주먹이 오고 갈 판이었다. 차라리 전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조차 들 지경이었다. 전도하는 자의 연약함을,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전도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맛본다. 서울역에서 큰 북을 메고 다니시는 할아버지를 가끔 본다. 옷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써 붙인 조끼를 입고 다니신다. 아무 말씀도 않으시며 다니시다가 사람이 많이 서 있는 곳에 가까이 가셔서 북을 크게 한두 번 치시고 지나가신다. 북소리에 놀란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돌아보며 조끼에 쓰인 글을 읽게 된다. 장로교인으로 자란 나에게 익숙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나는 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미소 짓게 되었다. 그들은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나는 국내와 해외로 선교를 다녀 온 학생 및 교수들과 매년 여러 차례 평가회를 갖는 기회가 있다. 공통된 그들의 간증은 "나는 이번 선교를 통해 복음에 대해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현장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으로 해 보는 전도가 심한 부담이 되었으나 그 결과는 정말 만족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배척할 때 나의 과거의 모습들을, 그들이 주를 영접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심정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된다. 복음을 위해 더욱더 나를 낮아지게 하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배워 가게, 더 애타하게 그들을 더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다. 복음 전파는 자주 고난을 수반한다. 그러나 고난으로 포장된 축복이 아닐까? 주님은 이러한 복음의 나눔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인과 다른 영혼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리라. 바보 예수를 따르는 예수 바보들로……. "We are fools for Christ(고전 4:10)"

편지

못 말리는 하나님

김화수 목사(뉴질랜드 주님의교회)

"하나님 또 슬슬 시작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셔도 제가 하나님 백그라운드로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참, 하나님은 못 말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뉴질랜드에 도착한 지 3주가 지나서야 예찬이 학교 입학을 위한 사전 절차를 모두 끝내고 교장 선생님 면담을 하루 앞둔 날, 예찬이가 가기로 되어 있는 Three Kings School로 가족들과 함께 답사차 갔습니다. 학교의 이곳저곳을 돌아보는데, 마침 테니스코트에서 두 아들과 함께 테니스를 치는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저를 보더니 "어, 목사님 아니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창피! 3주가 지났는데도 목사가 자기 교우의 얼굴을 아직도 익히지 못하다니' 그런 생각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아직 교우들의 얼굴도 다 못 익혔습니다."라며 죄송함을 전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회 교우가 아닙니다. 저는 새벽 제단을 주님의교회에서 쌓는 모교회 집사입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는 매일 새벽마다 뒤쪽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부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교우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가까이에서 뵌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설교단과 그분이 앉아 있는 곳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다가 제가 기도를 마칠 즈음이면 이 분들은 이미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후인지라 그 때까지 한 번도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반갑게 우리를 맞은 그 분은 둘째가 마침 Three Kings School에 다닌다며, 자기보다 애엄마가 학교에 대해서 더 잘 아니까 자기 집으로 가자고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학교 후문을 마주 보고 있는 그분 집으로 얼떨결에 따라 갔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학교에 대해 우리가 알고 싶었던 제반 사항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남편 되시는 집사님의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 집에서 산 지 4년이 지났는데 그 테니스 코트에는 그 날 처음 나갔다는 겁니다. 그날 오후에 갑자기 테니스가 치고 싶어서 애들과 함께 테니스 코트에 나갔는데 저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미리 보내어서 목사님을 만나라고 하신 것 같아요"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놀라워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뉴질랜드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얘기 말고도 곳곳에 미리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느끼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이곳에서 사역하게 될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평생을 살 사람처럼 이곳에서의 생활을 시작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한 직후, 여러 교우들이 물건 구입, 학교, 병원, 관공서 등등의 업무를 도와주시려고 많이들 말씀 주셨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직접 그 일들을 감당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 사람이 바로 우리인지라 짧은 영어실력이지만 부딪히며 문제를 해결해 왔었고, 이제는 관공서에 관련된 일까지도 직접 처리할 정도로 이곳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뉴질랜드는 한국과는 정반대의 4계절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곳은 지금 봄입니다. 벌써 여름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은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 나라지만 4계절 모두 온 세상이 푸른 빛깔로 색칠되어 있다고 할 정도의 무공해의 나라입니다. 자연적인 조건만으로는 세계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 천국이라 할 정도로 애들에게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가진 나라입니다. 예찬의 경우, 아직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지 못하니까 일주일에 이틀은 오전, 오후를 번갈아서 학교 수업시간에 특별교사가 붙어서 예찬이의 언어능력을 향상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업을 거의 따라갈 정도로 영어로 듣고 말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물론 아직 만족할 수준까지 이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반면에 교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한 가지 두드러진 문제점이 있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교민 자체인구로서는 경제 회전이 안된다는 겁니다. 전체 교민의 세대수가 약 2,000세대 정도이고, 유학생을 포함한 상주 인구가 10,000명을 넘지 못한 상태인지라(현재 약 9,000여명으로 추산됨), 교민 자체적으로 경제 회전이 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고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자녀들의 장래 직업을 구하는 데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여기서 4, 5년 정도 산 교민들 중 적지 않은 숫자가 지금 호주나 캐나다, 미국 등지로 재이민, 한국으로 역이민을 떠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교민사회에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구심점이 되어야 하기에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바른 마음, 바른 정신을 가진 교회로서의 자리매김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여러 교우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지금 이 순간도 그 중보기도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곳 생활에 감사하며 지내면서도 지난 6년을 더불어 지내왔던 교우들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그리움을 어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서울 주님의교회는 제 마음의 고향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형님, 누님같이 지냈던 여러분들의 얼굴 얼굴들이 떠오를 때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지금 우리를 세우신 곳은 서울이 아닌 이곳 오클랜드 주님의교회인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곳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사역을 통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여러 교우들이 주신 지난 사랑에 대한 갚음이라고 여겨 최선을 경주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99-30", 올해 새롭게 등록한 가족 수가 30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와 이곳 교우들의 하나님 사랑과 섬김의 열매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 집사람과 예찬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이곳에서도 성가대로 봉사하고 있고, 심방 때는 항상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찬이는 이곳 생활에 아주 잘 적응해서, '뉴질랜드 체질'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찬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갈 때는 가능하면 영어회화 테이프를 듣는 편인데, 요즈음은 아빠 영어 발음 고쳐주겠다고 덤벼들곤 해서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아빠, 그 단어는 그렇게 발음하는 것 아니예요, 아빠, 저를 따라해 보세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길….

우리 가족 모두의 사랑을 실어 보냅니다.

오클랜드에서 김화수 올림

특집 / 치유

그리스도인의 내적 치유

김영숙 C 집사(72구역)

9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영어 성경 공부반에서는 성경과 여러 정신분석의들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의 자긍심(Self-esteem)과 자기 이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내 자신이 정신의학과 신앙 생활의 접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신앙 생활에서 말씀·기도·찬양을 통해 삶의 큰 방향 전환이나 내적인 기쁨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늘 나의 내면 속에 정서적인 차원에서 설명되어지지 않는 여러가지 「느낌」들 때문이다. 또한 많은 예배와 신앙 훈련 속에서도 단순 명쾌하게 처리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자신과 이웃에 대한 끊임 없는 질문들 때문이다.

우리가 공부하는 교재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를 위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내적 치유 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7절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 근거하고 있다. 즉 네 마음, 뜻, 목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로부터 내적 치유는 출발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내 자신에게서만은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나 자신을 알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에만 이웃과의 참된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우리들이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가길 바라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이나 육체적인 치유에 관해서는 익숙하나 감성적, 정서적인 치유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뇌와 방황은 「신앙이 부족하다고 보기보다는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내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다. 여기에서 자기 이해란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부모·형제·사회·국가 더 나아가 한 시대를 통해서 「현재의 자기됨」에 영향을 끼친 전체 그림을 보고 자기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내 자신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신 분의 이야기이다.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교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배웠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보잘 것 없는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그 원수가 그 가장 보잘 것 없는 자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나 자신의 원수가 나 자신일 때 나의 용서와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신 것 같이 용서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를 때때로 우리들은 내 자신에 대해서 무의식 속에서부터 거부하며 나를 미워하고 의식 세계에서는 알 수 없는 적개심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표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적개심의 밑바닥에는 스스로 하나님같이 최후의 결정권자가 되려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오만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이 자기 파괴의 본능은 풍성한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정 반대되는 삶의 조건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받은 자로서 바라볼 수 있을 때만이 영적인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을 우리는 정서적인 차원에서 비로소 소화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자기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자기 에고에 대한 집착과 합리화가 아닌 건강한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소중하게 대하기 시작한다. 자기 소중함을 소유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성숙하게 그들의 싸움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비판과 자기 무시와 자기 무지의 눈이 아닌 동지애를 가지고 자기의 이웃을 이해하기 시작하며 진한 인간 공감대를 형성하며 나란히 옆에 서서 걸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적 치유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 번 겸손하게 무릎 꿇게 되는 것은 새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이며, 안다고 하는 것의 한계다.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남에 대한 관용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진심으로 갈망하게 된다.

또한 고치지 못하는 것, 변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하고도 조화로운 신비의 손길을 조용히 기대하게 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갖게 된다는 말이 되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내적 결론에 이르게 되며, 그분이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에 감사 드리며 내 자신과 내 이웃을 받아들이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있다.

고난을 감사함으로

하장용 집사(36구역)

1998년 9월18일 오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약국에서 근무 중이던 나는 갑자기 가슴이 찢어질 듯한 심한 고통에 약국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침 밖에 있던 이웃 사람들이 희미한 나의 신음 소리를 듣고 아내에게 연락을 해주었습니다.급히 연락을 받고 온 처남에 의해 인근에 있는 고려대 안암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나의 가슴은 칼로 도려내는 듯이 아팠고 터져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급박하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심전도에는 여러 개의 그래프가 위아래로 불규칙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허벅지의 동맥을 통해 심장에 풍선을 넣어 막힌 심장의 동맥을 즉시 뚫어주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운(?)좋게도 마침 다른 환자의 수술을 위해 수술대가 준비된 채로 비어 있었고, 전문의도 대기 중이었습니다. 나는 대기 시간 없이 즉시 심도자실로 옮겨졌고 막혔던 3개의 관상동맥은 넓혀졌습니다. 관상동맥 세 개가 동시에 막힌 경우 환자의 70% 이상은 병원 문 앞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고, 수술중에도 치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고비를 넘긴 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제 살았구나 하고 안도하던 나는, 나의 기록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수련의와 보호자를 찾던 주치의로부터 심장의 조직일부가 손상되었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겨우 생명은 건졌지만 앞으로 살아보았자 몇 달, 길어야 한 일 년쯤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이 서서히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참으로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한없이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그런 후에 나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가난 때문에 고생한 것 외에는, 결혼 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 이렇게 네 가족이 부족함도 어려움도 별로 경험하지 않고 비교적 만족하며 성실하고 평범하게 살아온 나였지만, 그것은 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온 나, 가정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심지어 신앙생활에 관해서도, 내 기준 내 방식에 맞지 않으면 잘못이라고 생각하던 비뚤어진 가치관의 허세적인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나를 용납하시고 항상 사랑하고 아끼시며 내가 주님 곁에 있기를 한결같이 소원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알게 하시는 주님에 대한 북받치는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질병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그릇된 가치관과 신앙생활을 거울에 비추듯 뚜렷하게 보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불안하고 낙담스럽던 나의 마음은 평안해지기 시작했으며, 이제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롭고 소망에 가득 찬 삶을 예비해 놓으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련해 놓으신 방법을 통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치유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한없이 흘렀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새롭게 시작하리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 소망의 길을 걸으면서,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기로.

육신의 질병이나 장애, 경제적 어려움 등 고난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도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곧게 서자고.

나를 업어 주신 주님

엄주청 집사(67구역)

주님의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 생활이 시작된 지 3년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업의 실패와 믿음 생활을 통한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모든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으로 매우 외로웠습니다.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의심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에 거래하던 캐나다의 바이어가 저를 찾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들뜬 마음으로 중국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요?

도착 이틀 후 1994년 1월 14일, 영하 28도인 몹시 추운 저녁 심양시 태원가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왼쪽 발목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으며 '하나님! 저는 여기서 쓰러지면 안됩니다. 제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며 처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계속 불렀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 상점들은 일찍 닫았고 인적마저 없었습니다. 칠흑같이 깜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한 남자가 나타나서 꼼짝 못하는 저를 무조건 들쳐 업고 재빨리 제가 묵고 있는 중흥호텔로 데려 갔습니다. 저를 알아본 호텔 종업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즉시 차를 준비하여 심양의 전문 골병원(정형외과)으로 옮겼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라 의사가 퇴근하고 없어 수술은 불가능하고 응급처치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통증은 너무 심해 참을 수가 없었고 간이 병실에서 추위로 매우 떨었으며, 혼자라는 두려움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호텔 종업원 두 사람이 자신의 코트를 덮어주며 정성을 다해 밤새워 간호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저를 업어준 그분을 꼭 찾아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깜깜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기에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얼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이었을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주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업어 주셨구나!' 하며 깊은 감사와 회개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날로 4시간이 걸리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나 혼자서도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서 어려운 수술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4개월의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어, 의료 환경, 생활 문화의 차이로 무척 힘들었지만 얼마 후에 간병하기 위해 집사람(유은숙 집사)이 오게 되었습니다.

수술 받은 한국인이라 하여 중국인 의사와 많은 간호원, 심지어 환자들까지도 처음에는 호기심 반 동정심 반으로 우리 부부를 자주 찾아 왔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것을 알고 그들은 우리 부부를 좋아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눈빛으로 손짓으로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들과 감정이 통하여 함께 웃는 시간이 많아져 서로가 가족처럼 친해졌습니다.

그곳 입원생활을 통하여 저와 아내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내 육신의 건강함과 사회의 경험, 내 실력만을 믿고 마구 바쁘게 뛰는 나에게 병원 생활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

전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원,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하나님께 구원 받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주일마다 아내는 혼자 멀리 있는 조선족 교회에 나가 꼭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날, 간호사 5~6명이 함께 와서 지금 읽고 있는 두껍고 검정색으로 된 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통역을 통해 성경이라고 말하고 이 책을 읽고 믿으면 마음에 평강과 가정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했더니, 다들 그 책을 구할 수가 없느냐, 가격은 얼마 정도 되느냐, 교회에 나가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저는 중국 심양시 서탑 교회에서 중국어로 된 성경책을 12권 샀습니다. 필요하다고 부탁할 분이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을 받은 순진한 그들은 돈을 모아 책값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도 고집을 부리기에 한 가지 제안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혹시 이 다음에 성경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 내 대신 선물하라고 하였더니 좋다고 하며 웃었습니다. 어떤 간호사는 우리 병실에서 찬양 테이프를 들으면 공연히 눈물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참 좋다고 했습니다. 테이프를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역사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으로 주님을 모르는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여의사 집에는 자기네들이 모시고 있는 재물신을 없애고 성화를 걸었으며 남편은 담배도 끊고 가족들이 함께 중국인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지금은 구역장 일도 보고 있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저를 업어서 그들에게 보내어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 사건을 기회로 중국에서의 올바른 복음 전파와 문서 선교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문서 선교에 대한 모든 이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그들의 안내가 되셔서 시련을 당할 때 힘이 되어 주시며 그들의 심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즐겁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옵소서. 어두움에는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그들을 당신의 도구로 써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기고

주님의교회 대학·청년들의 활성화를 소망하며

김원재 전도사(청년부 담당)

얼마 전 발표된 자료에서 우리나라 대형 교단들의 지난 1년간의 교세 신장이 몇 백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보고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이것이 숫자상의 통계인데 사실상 -5% 내지 -10% 성장이었을 것이라고 교회 통계에 밝은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최대 교단임을 자부하는 우리 교단(예장 통합)이 양적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것은 한국 교회의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이탈자(?) 중 많은 교인이 교회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지적은 한국 교회의 허리뼈에는 심각한 골다공증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중증이 조속히 치료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조차도 그 미래가 결코 밝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이 땅의 기독인 대학·청년 운동이 죽은 것은 아니다. 90년대' 중반기에 들어 급격히 변한 대학 캠퍼스의 분위기는 대학생 선교단체의 사역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선교단체들은 비록 느리기는 하여도 여전히 성장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단체들의 직·간접적인 영향과 자체적인 노력으로 뭔가 꿈틀거리며 어느 정도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대학·청년부가 있는 교회는 지난 70, 80년대에 비하여 오히려 더 많은 수가 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한국교회 대학·청년부는 점점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잘 나가는(?)' 교회 대학·청년부들은 타교회로부터 이탈하여 수평이동한 청년들로 인해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 및 청년들에게 있어서 무조건 복음 및 선교 운동이 저조하다거나 하락세에 있다고 보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다만 아주 분명한 것은 '잘 나가는'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들의 허리, 곧 대학·청년부에 심각한 이탈현상으로 골다공증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바로 이런 점으로 인해 한국 교회의 허리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아직 절망할 단계는 아님을 말할 수 있다. 대학생 선교단체들과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 대학·청년부들을 보면, 젊은이들 자체가 복음으로부터 이탈한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에게 무관심하고 교육적 배려가 적은 교회들로부터의 이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한국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전향적으로 대학·청년부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그 대학·청년부들은 성장하며 장차 나아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게 된다.

우리 교회는 금년 들어 많은 교인들이 새로이 등록하였다. 등록한 새교우 중에 많은 수가 청년들이다. 그 청년들의 면면을 보면 상당수가 타교회에 출석한 경험이 있는 기신자들이다. 그런 그들이 주님의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교회로 옮겨가지 않고 이곳에서 좋은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것이다. 그들이 교회를 옮기게 되거나 신앙을 쉬었던 것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는 주님의교회가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데에 반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조차도 그들의 신앙이 자리를 잡지 못할 때 그들의 심령은 또 한번의 상처를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새롭게 일어서는 교회이다. 그 중에서도 대학·청년들에게는 더더욱 일어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학·청년부들의 성장은 교회의 관심과 신앙선배들의 지도가 없이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청년부로서 자리를 잡으려고 막 발돋움하는 주님의교회 청년부를 위해 진심어린 기도와 관심이 요청된다. 그것은 앞으로 주님의교회의 초석을 세우는 것이고 이 세상의 파괴된 역대의 기초를 쌓아가는 것이다(사 58:12). 그리고 이것은 한국 교회와 주님의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청년부 소식

1. 지난 10월 17일 ACTS(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 공부하러 오신 인도와 방글라데시 현지 목사·목사후보생 3명을 모시고 현지 사정과 선교에 대한 정보를 얻는 '선교 비전 나누기' 시간이 있었다.

2.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일을 맞아 종교개혁 특강이 있었다. 강사는 우리 교회 전진은 목사(중등부·장로회신학대학원 박사과정 조직신학 전공)가 해주셨다.

3. 2000년 청년 사역을 위한 조직 개편이 10월 24일 청년1부 임시총회를 필두로 시작된다. 내년에는 청년부의 새 이름 달기, 소그룹 모임의 활성화, 전도여행, 특별모임 및 청년사역 지원팀 구성 등의 일들이 이루어진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가 요청된다.

4. 11월 17일 대입 수능시험이 있다. 재수생들을 위한 관심어린 중보기도가 요청된다.

이 분도 주님의교회

찬양사역자, 홍수철 집사

홍수철 집사(73구역)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등록한 뒤 열심히 안내일로 봉사하는 홍수철 집사.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북 의주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며 아버지는 모태 신앙이다. WBA 밴텀급과 수퍼 페더급 챔피언이었던 형님 홍수환 집사도 온누리 교회에 다니고 있다. 「철없던 사랑」「장미빛깔 그 입술」「서울에서 평양까지」 등 노래들을 발표해서 가수로 인기를 누렸었다. 초등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한동안 교회를 떠났지만 85년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였다. 우리 교회 남성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지금은 '찬양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가스펠」도 발표했다. 부인 박미령 집사, 자녀 자린(중등부), 요셉(유치부)과 함께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

신앙 클리닉

Q : 보통 사람들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면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분도 일부 계시겠지만 어느 틈엔가 팔자 타령 내지는 운명론을 가끔은 내세우게 됩니다. 특히 사업, 자녀, 진학문제엔 더욱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일생이 정해져 있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A :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성품과 관련된 것을 60% 이상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개인의 운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러한 운명적인 것들을 밑거름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적인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다면 그것은 가능성과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모험하기 위해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가능성이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일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에서는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다 함께 웃고,
힘든 일도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원고를 기다립니다.

법률상식

계모자간의 상속 가능 여부

김완중 집사(변호사·17구역)

문 : A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니는 B와 재혼을 하여 생활해 오다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리하여 A는 계모인 B의 슬하에서 자랐는데, 최근에 계모인 B마저 사망했을 경우 A는 계모인 B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지.

답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데 상속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자녀들인 직계 비속을 1순위의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 비속은 자연 혈족과 법정 혈족으로 구분된다.

1991년도 이전의 구민법에서는 아버지의 혼인 외의 자와 아내와의 관계인 적모자 관계와 아버지의 친자식과 계모와의 관계인 계모자 관계를 법정 혈족으로 인정하여 자연혈족(친생자)과 동일하게 상속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991. 1. 1부터 시행하는 개정 민법에서는 종전의 적모자 관계, 계모자 관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법정 혈족관계를 부정하고 단지 직계 존속의 배우자로서 인척 관계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결과 현행 민법에 의하여 A는 계모인 B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고 계모의 유산은 아버지와 계모인 B 사이에 태어난 이복 동생들에게 상속되고 만약 이복 동생들이 없다면 계모인 B의 유산은 B의 친정 부모 등 친정쪽 가족들이 상속받게 된다.

교회소식

공동의회

공동의회가 11월 7일 1부 예배 후에 개회된다. 이번 공동의회에서는 장로 5인, 안수집사 10인, 권사 10인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있으며, 만 18세 이상된 등록 세례교인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임영수 담임목사 방송 설교

임영수 목사는 주일 낮 설교와 '영성과 삶'을 다음과 같이 방송설교 하고 있다.

- 주일낮 설교 : 매주 월요일 저녁 7:15 극동방송(AM 1188)
- '영성과 삶' : 매주일 오후 1:05 기독교방송(FM 98.1)

교우동정

▶ **결혼**

- 김원경 권사(70구역) 장남 안용덕 군과 정윤경 양 / 9/18
- 서길원 집사·고초순 권사(20구역) 차녀 서은하 양과 김준희 군 / 10/9
- 박순재·손경숙 집사(64구역) 장남 박석원 군과 조영림 양 / 10/10
- 배인순 집사(74구역) 장남 이동호 군과 연미향 양 / 10/17
- 박철수·최미경 집사(10구역) 장남 박성훈 군과 윤현조 양 / 10/23
- 마용해 집사·문창복 권사(3구역) 장남 마정삼 군과 이누츠카 미키 양 / 11/6
- 서우석 군(청년1부)과 박주향 양(청년1부) / 11/6

▶ **출산**

- 차승도·오지연 성도(1구역) / 득남(성호)
- 류상규·송정성 성도(71구역) / 득남(지용)
- 이영철·심성조 성도(69구역) / 득녀(예나)
- 배현식·권양순 성도(6구역) / 득남(진석)
- 노언석·김희성B 성도(16구역) / 득남(일권)
- 조지만·곽성희 집사(22구역) / 득남(민호, 건호)

▶ **소천**

- 성도(윤학병 집사 모친) / 36구역
- 심영은 집사 / 46구역

▶ **이사**

- 민병준·이승란 성도(61구역) / 성북구 돈암동 한신A 204-1304 (928-7139)
- 권영식·손민정 집사(34구역) /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A 133-503 (404-5747)
- 박정우·안신자 집사(8구역) / 중구 신당4동 842 약수하이츠A 111-1504
- 안강현·최임희 성도(16구역) / 분당
- 이영수·이명순 집사(22구역) / 은평구 신사동 7-34 (387-3843)
- 엄주청·유은숙 집사(67구역) / 강남구 역삼동 667 신라빌라 202호 (539-8076)
- 안사무엘 목사 / 송파구 석촌동 159-10 (2202-5932)
- 강정호 목사 / 강남구 대치4동 934-6 삼성빌라 301호(501-1845)

▶ **개업·동정**

- 이종환·김창희 집사(73구역) / 이동통신 대리점(969-3011)

새책 안내

한국 근·현대정치론

김용직 집사(성신여대 교수·15구역)가 「한국 근·현대 정치론」을 발간했다.

이 책은 역사 사회학적인 관점과 한국 정치 연구를 접맥시키려는 거시적 관점에서, 지난 1세기 남짓 한국 근·현대 정치외교적 상황과 조건을 규정하였던 주요 문제들-민족주의, 사회운동, 전파-을 분석·성찰하고 있다. (도서출판 풀빛 발행)

시

하나님 임재 속에서(1)

배경란 집사(49구역)

내 마음은 얼마나 크고 깊은지요!
영원(永遠)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주님이 거기 계시니 또 얼마나 부드럽고 달콤한지요!

눈을 감으면 더욱 뚜렷이
눈을 뜨면 온 땅위에 가득히 주님의 향기!

푸른 하늘에 흰구름 꿈결같이 떠돌고
푸르런 나뭇잎에 흐르는 금빛 햇빛의 음악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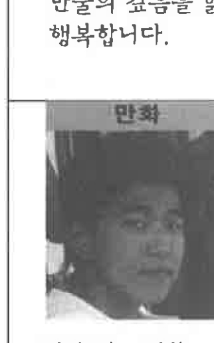
오! 가슴에 주님을 품은 자는 행복합니다.

육체에는 슬픔과 고뇌가 있지만,
이 세상에는 악과 불법(不法)이 성(盛)하지만

보이지 않는 선(善)하신 주의 손의 권능
제어(制御)하시는 위대한 질서가 있기에
치유하시는 사랑과 안위의 손길이 있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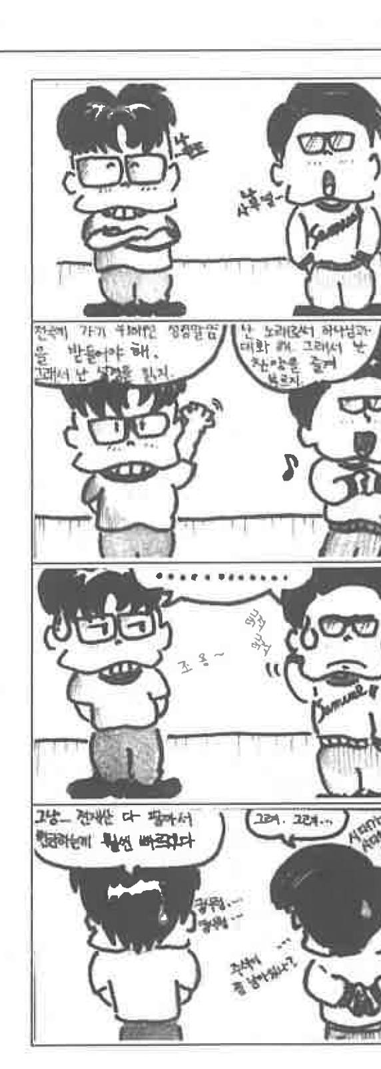
소망 중에 바라보는 미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만물의 깊음을 밝히보는 눈동자, 그 은총을 입은 자는
행복합니다.

만화



김원준(고등부)

주님의교회에 다니는 한조와 사무엘. 그들이 천국에 가기 위한 자세에 관해서 이야기 합니다.


난 한조
난 사무엘~
천국에 가기 위해선 성경말씀을 받들어야 해. 그래서 난 성경을 읽지.
난 노래로서 하나님과 대화 해. 그래서 난 찬양을 즐겨 부르지.
......
조용~
그냥... 전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는게 훨씬 빠르겠다
그려. 그려...

천국 열쇠를 돈으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세요!

의학상식

골다공증

신성숙 집사(대한약사회·59구역)

골다공증은 골격이 아주 약해져서 조그만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질환이다. 이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가지이나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경우이다. 골다공증은 낮은 골량과 골조직의 구조가 황폐해진 상태이므로 뼈가 쉽게 부서져서 고관절, 척추, 손목 등의 골절이 잘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뼈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칼슘 성분이 뼈에 충분히 결합되어야 하는데, 이 칼슘 성분은 30대 초반까지 뼈에 많이 저장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뼈의 칼슘량이 서서히 감소된다. 따라서 튼튼한 뼈를 가지기 위해서는 태어나서부터 30대 초반까지 충분한 칼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젊은 여성의 경우는 특히 더 중요한데 미국의 경우 골다공증에 걸린 사람의 80%가 여성이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달리 50세 전후에 찾아오는 폐경이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뼈로부터 칼슘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호르몬이 남성에게는 남성 호르몬이고 여성에게는 여성 호르몬인데, 여성의 경우 폐경으로 인하여 여성 호르몬(에스트로겐)이 갑자기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폐경과 함께 뼈로부터 칼슘이 급격하게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젊은 시절까지 균형있는 식사가 중요하다. 또한 적절한 운동(예 ; 걷기, 계단 오르기, 조깅)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좋은 자극제이다. 일반적으로 칼슘이 많은 음식은 우유, 요구르트, 가시 많은 생선, 치즈, 시금치, 양배추, 강낭콩 등이다. 40대 이후에는 남녀 모두 섭취한 칼슘이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량이 부족하게 되므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칼슘이 함유된 약을 복용하는 것도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된다.

또한 여성의 경우 폐경과 함께 여성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호르몬 치료로 발생되는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기 때문이다. 장점은 골다공증을 예방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폐경으로 인한 우울증이나 불안증, 요실금증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또는 심근경색증의 발생을 예방하며 노인성 치매의 발생도 예방해줌으로써 노후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주며 평균 수명을 약25%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 나쁜 점이나 환자들이 꺼리는 이유는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의 발생 위험성, 체중의 증가(2~3Kg) 등이다.

그러나 적절한 약제 사용으로 유방암의 발생률도 그리 많이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오히려 조기에 암을 발견함으로써 완치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남성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 50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나 임상적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또한 흡연과 폭음 등이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므로 이를 삼가야 할 것이다.

유머 한마디

영성 훈련을 받은 사오정

우리의 멋쟁이! 우리들의 뒷북! 우리만의 넌센스! 그 이름하여 사오정!!!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는 배불뚝이 사오정이었다. 그가 2일간의 삶과 영성이라는 교회 수련회의 영성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는 나도 멋진 삶을 살거야! " "그래 맞아!! 강사님이 가르쳐 주신 집중기도와 관상기도를… 하며"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두 손을 꼭 모으며 집으로 향했다.

다음날 새벽 기도회에서 제일 친한 교우인 손오공·저팔계·삼장법사와 함께 눅 10:38~42 말씀을 놓고 관상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다. 말씀의 사건 속에서 기도중 서로가 만나기로 하였는데 손오공·저팔계·사오정·삼장법사, 모두에게 무시무시한 요괴들이 기도 중 보이는 게 아닌가!

놀란 삼장법사가 사오정에게 말했다. *"오정아, 요괴다! 요괴! "*

그러자 우리의 배불뚝이 사오정이 짜증스럽게 화를 내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요는 아까 다 갰습니다요!"***

그래요.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깊은 영성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답니다. - 용인에서 사 - 오정 올림 -